

지역 소식통

정읍시, 축산 악취 '미생물'로 잡는다

정읍시가 미생물을 활용한 친환경 공법으로 고질적인 축산 냄새 문제를 해결하고 쾌적한 농촌 환경 조성에 나선다. 시는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공모 사업에 최종 선정돼 2년간 총 20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사업의 명칭은 '2026년 에코프로바이오틱스 이용활성화 사업'이다. 시는 확보된 예산을 투입해 오는 2027년까지 관내 10개 양돈 농가를 대상으로 미생물 제제를 활용한 실질적인 악취 저감 실증에 나선다.

사업의 핵심인 '에코프로바이오틱스'는 가축의 소화·흡수율을 높여 분뇨 내 악취 유발 물질을 원천적으로 줄여주는 유익 미생물이다.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축산 냄새로 인한 주민들의 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생활 환경을 개선하는데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친환경 축산물 생산 기반을 다져 지속 가능한 축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구상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 어린이교통공원 20년만에 새단장 한다

정읍시가 노후화된 어린이교통공원을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최신 안전 교육 공간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해 리모델링 공사에 착수했다. 이에 따라 공원은 오는 3월 23일까지 임시 휴관에 들어간다.

어린이교통공원은 지난 2006년 7월 개관 이후 약 20년이 지나면서 시설 노후화와 교육 환경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시는 주요 이용층인 유치원생과 초등학생의 방문이 뜸한 겨울방학 기간을 활용해 로비와 제1전시실을 우선적으로 전면 교체·정비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1차 리모델링에 이어 교육청과 협의를 통해 다음 겨울방학 기간에는 제2전시실에 대한 추가 공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단계적인 시설 개선을 통해 공백을 최소화하면서도 아이들에게 최적의 교육 환경을 제공하겠다는 방침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서남권 해상풍력 사업 '군민과 함께'

고창군, 사업 본격화... "해상풍력 사업을 주민 참여·이익공유 모범사례로 추진"

'서남권 해상풍력 사업'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고창군이 "해상풍력 사업이 주민참여와 이익공유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 가겠다"고 밝혔다.

19일 고창군에 따르면 최근 '서남권 해상풍력 사업자(서남권윈드파워(주) 컨소시엄)'가 선정되면서 사업이 본격화됐다. 사업자들은 2030년 완공을 목표로 2.4GW규모(원전 2기 이상)의 해상풍력단지를 짓게 된다.



앞서 고창군은 지난해 12월31일 '고창군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등에 대한 주민참여 및 개발이익 공유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조례는 해상풍력을 포함한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서 군민이 참여하고 개발이익을 공유할 수 있도록 했다.

해상풍력 사업을 일방적인 개발이 아닌, 주민과 지역이 함께 혜택을 나누는 상생의 에너지 정책으로 전환하기 위한 중요한 출발점으로 평가받고 있다.

고창군은 "서남권 해상풍력 사업이 개발 사업자의 이익으로만 끝나는 사업이 아닌 군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며 "해상풍력 개발에서 군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고 상생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고창군은 "서남권 해상풍력 사업이 개발 사업자의 이익으로만 끝나는 사업이 아닌 군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며 "해상풍력 개발에서 군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고 상생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시 '2026년 시민 일상 이렇게 달라집니다'

7개 분야 총 134건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 홍보... 시내버스 환승제·근로자 점심값 지원 등

정읍시가 2026년 새해를 맞아 시민들의 일상 속 변화를 이끌 7개 분야 총 134건의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에 대한 본격적인 홍보에 나섰다.

이번에 발표된 정책은 신규 도입 52건과 기존 혜택이 확대되는 82건으로 구성됐다. 분야별로는 △복지·건강·안전 분야 53건 △농업·축산(27건) △행정·시민생활(19건) △경제·산업(16건) 등으로 시민 삶 전반을 촘촘하게 아우른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일상 속 편의와 경제적 지원이 눈에 띈다. 교통

비 부담을 덜어줄 '시내버스 환승제'가 도입되고, 문화 향유 기회를 넓히는 통합문화이용권 지원이 확대된다. 특히 일하는 시민을 위해 '중소기업 근로자 점심 식대 지원'과 '이동노동자 휴게 쉼터 운영'이 시작되며, 소상공인을 위한 '등등보험' 및 '희망채움통장' 등 민생 경제 활력 정책도 강화된다.

또한 출산·양육 가정을 위해 육아수당과 아동수당을 늘리고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을 지원한다. 더불어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한 월세 및 이자 지원 사업도 추진된다. 어르신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는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을 인상하고, 의료와 요양을 결합한 통합 돌봄 서비스를 시행해 사회안전망을 더욱 견고히 했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부터 달라지는 시책'을 전자책(e-book)으로 제작해 시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종이 책자는 시청 민원실과 각 읍·면·동 주민센터에 비치해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창군, 개발행위허가 서류 간소화 서비스 시행

고창군이 개발행위허가 절차를 대폭 개선한 '개발행위허가 서류 간소화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규모에 비해 제출해야 할 서류가 많은 개발행위허가에 따른 높은 허가 비용 부담 및 불법 포장행위 증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선대상은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농막, 육묘장, 저온저장고 등의 농업용 시설 및 체류형원터 등의 영농생

활시설로, 시설 운영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콘크리트·압석 포장행위가 포함된다. 다만, 절·성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50cm 이하로 한정된다.

기존에는 실측평면도, 종·횡단면도 등 복잡한 도면 제출이 요구돼 허가 비용이 건당 약 200만~400만원에 이르는 경우가 많았으나, 앞으로는 건축 계획평면도에 포장 위치만 표시하면 허가 신청이 가능하다.

서류 간소화로 부족한 부분은 담당 공무원이 직접 현장을 확인해 주변 토지 피해여부, 안전성 등을 점검함으로써 행정의 신뢰성과 공공성도 함께 확보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민원인의 비용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불법 포장행위 감소와 원상복구 명령 등 불필요한 행정력 소모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개시

원활한 지원금 수령 위해... 첫날부터 현장 행정 '총력'

정읍시가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첫날인 19일, 시민들이 대기 시간 없이 원활하게 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현장에 집중하며 본격적인 지급 절차에 돌입했다.

이날 이학수 시장과 관계 공무원은 관내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수성동과 내장상동 행정복지센터를 잇달아 방문해 현장 상황을 살폈다. 이들은 신청서 작성 공간과 시민 이동 동선, 안내 인력 배치 현황 등을 직접 점검하며 실제 접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편 사항을 확인했다.

특히 현장을 찾은 시민들의 목소리를 청취하며 대기 시간이 길어지지 않도록 탄력적인 인력 운영을 주문하고, 디지털 기기 사용이 어려운 고령자와 취약계층을 위해 전담 안내 요원을 배치하는 등 시민 편의를 최우선으로 한 현장 대응을 강조했다.

앞서 시는 지난 16일에도 사전 현장 방문을 통해 신청·접수 준비 상황을 미리 점검한 바 있다. 시는 16일 사전

점검에 이어 19일 실제 지급 현장까지 꼼꼼히 챙기며, 준비 단계부터 실행 단계까지 행정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학수 시장은 "민생회복지원금은 시민의 손에 가장 먼저 닿아야 할 정책"이라며 "책상 위에서 판단하는 행정은 아니니, 현장에서 시민의 목소리를 듣고 즉시 개선하는 행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정읍시는 현장 중심의 꼼꼼한 점검과 신속한 행정 대응을 통해 시민의 일상에 부담을 더하지 않는 행정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했다.

한편, 시는 강도 높은 재정혁신을 통해 마련한 재원으로 1월 19일부터 2월 13일까지 모든 시민에게 1인당 30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신발카드)을 지급하고 있다. 시는 지급 초기 현장 혼잡을 방지하고 시민 편의를 높이기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5부제를 적용해 순차적으로 지급을 진행한다.

/정읍=김대환 기자

어르신 무릎 인공관절 수술 의료비 지원

부안군, 성실한 공약이행으로 군민 고통·부담 경감

부안군은 민선 8기 공약사업으로 지난 2022년 12월 부안군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2023년부터 4년째 수술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무릎 관절증으로 일상 생활에서 고통을 겪으면서도 수술을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 어르신들에게 무릎 인공관절 수술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70세 이상의 저소득층(건강보험료 중위소득 100% 이하) 어르신으로 지원액은 한쪽 무릎 기준 100만원, 양쪽 무릎 기준 200만원 한도로 건강보험 급여의 본인부담금에 해당되는 검사비, 진료비, 수술비를 지원한다.

그간 의료비 지원 현황은 지난 2023

년 47건, 2024년 60건, 2025년 80건 등 총 187건 1억 8700만원의 의료비를 지원했으며 올해는 60건 중 1월 현재 10건 1000만원을 지원했다.

지원신청은 수술일로부터 1년 이내에 구비서류인 진단서(소견서), 수술 확인서, 진료비계산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건강보험 납부확인서(최근 3개월), 주민등록등·초본을 지참해 보건소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내용과 지원 조건 문의는 부안군보건소 ☎ 063-580-3812)로 하면 된다.

군 보건소 관계자는 "무릎 인공관절 수술 의료비 지원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치료를 미루는 어르신들의 부담을 덜어드리고 건강한 일상생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